

종단소식

조계종

우수본사 3곳 선정 표창



제 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법장)와 제 14교구 본사 범어사(주지 상오),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중원)는 총무원과 중앙총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총무원정감사에서 우수본사로 선정돼 17일 총무원장 월주 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도안사 스님의 날 기념법회

안성 도안사(주지 송암)는 3월 1일을 '스님의 날'로 정해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꽃다발 증정과 무용공양 등으로 진행된다.

고종종

강원불교대 8기 졸업식

강원불교대학(학장 이선형)은 11일 8기 졸업식을 가졌다. 1백9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34명이 포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종헌종법 개정 소위 열어

총무원은 24일 오후 3시 설법전에서 종헌종법 개정 소위원회 회를 열었다. 위원회 측은 "개정 의 기본적 방침은 전 종도들의 기쁨을 위한 시대를 반영해 적극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전대종

금강불교대 156명 졸업식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15일 156명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생은 156명으로, 34명이 포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제14회 졸업식이 14일 우면동 관문사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졸업생 일동과 금강불교대 총동문회는 학교측에 "2000년 (가칭)금강대학교 설립 기금으로 써 달라"며 4천만 원을 기탁했다.

진각종

종비교육생 연수 교육

종비교육생 연수교육이 26일 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총인원 연수원에서 실시된다. 기존 장학생 3명과 신규 장학생 8명 등 11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상견례, 교전사경, 총무부장 면담, 도서실 이용법 교육 및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보문종

경제위기극복 방생 법회

총무원(원장 혜일)은 8일 여주 신록사 남한강변에서 '국태민안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강의 오열을 막기 위해 물고기 방생 대신 천도의식만으로 진행됐다.

총화종

15개 총무원 순회감사

총무원(원장 남정)은 28일 부산총무원을 시작으로 한달여 동안 전국 15개 총무원 순회감사에 들어간다. 이경산 심의 및 승인과 활동계획을 보고 받고, 총무원정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

법륜종

위령재등 올 사업 수립

법륜종 유지재단(이사회 석정각)은 24일 제24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예결산을 승인하고, 신년사업으로 종도연수교육, 위령재, 법계교시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몽골에 한국불교 알리겠어요”

진천 원흥사 몽골스님 수행현장을 가다

한몽 불교교류 차원 가산스님 초청 17세이하 22명 한국어·참선 등 배워

“땀땀 제비 데르정 잔라이사...” 아직 친구운에 코골이 어린 이른 새벽 총북진전 두타산 대작품의 원흥사(법주 석가산). 티벳에 새벽에 불 소리가 이제롭다. 이어 어눌한 우리말 발음이지만 “계할 정할 래 탈랑 해탈지견행...지심귀래...”하는 예불문 독송이 골짜기를 타고 종성의 마을로 흘러간다.

세백예불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몽골에서 온 스님들. 한-몽골 불교문화교류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22명이 왔고, 몽골 다라에호사의 주지 바담한드스님의 요청을 가산스님이 받아들여 이들을 초청한 것.

이국땅에 와 있지만 이들의 생활은 고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법담으로 향한다. 티벳과 한국식 예불을 올린다. 한국식 예불은 예불문 독송으로 대신한다.

예불 후에는 각자 명상에 들어가며 동이 뜨기 시작하면 도량청소에 나선다. 이후에는 한국어 공부와 천수경 독경, 명상을 밤 10시 잠들기 전까지 반복한다. 다른 것이라면 새벽예불을 두 번 올리고 한국어 공부가 더해진다.

지난 15일로 한국에 온지 석달을 맞았다.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는 조금의 뉘앙스 없이 소통이 어렵지 않다. 이들은 14~17세로 어린 나이지만, 출가한 지는 2~5년에 이른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출가가 허락되기 때문이다. 출가 후에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불교와 일반 교육을 받는다. 한국어는 몽골국립대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아무나(22) 선생님이 가르친다.

가산스님은 “외국에 한국불교를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한지인



◇몽골에서 온 스님들이 새벽예불 때 우리말로 예불문을 독송하고 있다.

들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한국불교 승의와 참선, 불교문화 화사를 본격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몽골스님들은 5월 중순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의 체류비용은 모두 가산스님이 부담하고 있다. 가끔 ‘원흥사 몽골스님’ 소식을 들은 스님들이 쌀을 보내와 어려움을 덜어준다. 가산스님은 신도도 많지 않은 산골 절에서 이 일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관심있는 불자들의 후원을 당부한다.

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님이 됐으며, 돌아가면 불교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롬스님(17)은 “돌아가기 전 한국의 삼보사찰을 꼭 참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세계를 접한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몽골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천=정성운 기자

무안 초의선사 생가복원 구례 장죽전 차재배지도

무안 초의선사 현창사업, 구례 장죽전 녹차시배지 복원 등 내부의 '건강한 고장만들기' 지원대상이 확정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다도의 정림자로 알려진 초의선사 현창사업은 총생자인 무안군 삼향면 원산리 일대에 내년까지 15경 규모의 초의선사 생가를 복원하고 추모각과 추모비를 건립하게 된다. 전국에서 장죽전 녹차 재배한 것으로 알려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장죽전 녹차시배지에는 1백12경의 기념관과 판매장이 신축된다.

bn 방송기금 5억 받아

불교TV(사장 정우스님·구룡사주지)는 12일 한국방송개발원 선정하는 방송영상진흥기금 대출 방송사로 확정 5억2천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제작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고려불화' '법패' 등 불교문화 시리드물이다. 또한 KBS, 지역민방, 미국 위성방송 K-TV 등과 프로그램의 포괄 약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도청앞 지하철 공사 문화재 사전조사 안해 '물'의 대항사 터...전문가 "출토유물 많다" 지적

광주시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지하철 건설기간 중 도청 앞에 역사를 짓기 위해 도청 본관 앞을 굴착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화재관계자들은 “현재 중심사에 봉안돼 있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호)과 고려초기의 석탑재가 도청자리에서 발견된 것을 비롯 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조각들이 대량 출토된 적이 있어 공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유물들은 도청자리에 통일신라시대의 대항사가 있었다는 설을 뒷받침하고 있어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라는 것.

진각종복지회 법인인가 수탁 복지관·병원등 운영

진각종 사회복지법인 진각종복지회(대표이사 성호 불리원장)가 18일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불리원(성북구 하월곡동) 성취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복지재단은 회당장학사업, 대우교구청 청도수도원의 사회복지 시설법인으로 변경, 정부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수탁운영, 불교 사회복지 조사연구사업, 불교복지기금 조성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상담 및 해외근로자 상담실 개설 위한 사업준비로 분주하다.

충남도 지정문화재 절반 훼손 관리부실...정림사지 오층탑등 24점 변색·균열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등 충남내 지정 문화재 중 절반이 관리소홀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지정문화재 49점을 특별조사한 결과 24개 문화재가 관리소홀로 훼손되거나 주변정비가 부실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제9호)에는 이끼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풍화속도의 우려가 있고,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보물 제802호)은 지붕의 기와가 떨어져 빗물이 새고 단청이 퇴색돼 있다. 보령 성주사지 중앙 3층석탑(보물 제47호)과 서(西)3층석탑(보물 제 20호)은 기단부 석재 이완 현상으로, 공주 사철당간과 주주는 녹슬음이 심해 정밀조사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탐사 대응전 철거 취소판결 광주고법 "진안군 재량권 남용 위법 행위" 전주지법 '전통사찰' 불인정...논란일 듯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소재한 마이산 탐사(주지 왕선) 대응전·산신각 철거를 둘러싼 법정소송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1특별부(재판장 박행용 관사)는 5일 마이산 탐사를 원고로 한 탐사 대응전에 관한 철거대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진안군의 계획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진안군)는 원고와 관할권을 분배해 온 지난 8년간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다가 원고가 더 이상의 분배를 거부하자 비로소 철거를 구하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강행할 경우 전통사찰보존법상의 허가권자(문화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획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철거의 부당함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심병연 부장판사)는 탐사를 원고로 한 관할요지의 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탐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확인소송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訴)라며 이를 각하했다. 이로써 탐사의 대응전·산신각 철거문제의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탐사 주지 왕선스님은 “탐사는 대응전 나한전 요사채 등 부속건물 7동이 있는 전통사찰이다”며 “상급심의 전통사찰이란 유권해석에 하급심인 지방에서 불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님은 전주지방법의 결정과 관련 광주고법에 항고할 예정이다.

탐사 대응전 철거 취소판결

광주고법 “진안군 재량권 남용 위법 행위” 전주지법 ‘전통사찰’ 불인정...논란일 듯

여성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이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노외갑상선고통병이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항비를 사용한 체질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 번에 배꼽에 만든 '항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먹고 마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다고 사용해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 부터 피부가 고와진다 예뻐졌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이는 얼굴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활력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질없이 느끼 있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 시한한 헌병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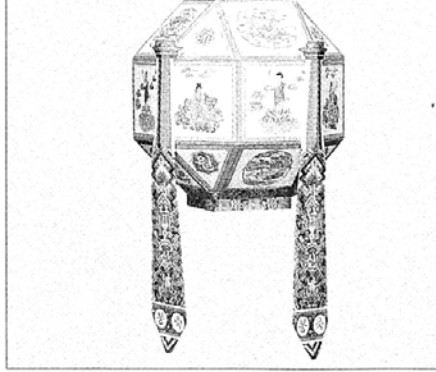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봉축위원회에서 추천한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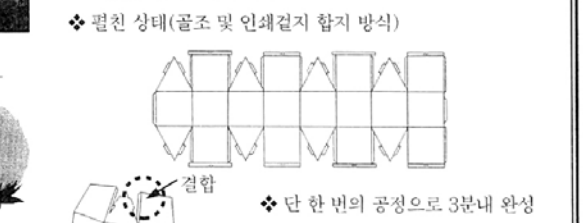
가격 인하 단행!!

외환 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방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관공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를 조성'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단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매겨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문의 하실 곳 : (02)277-1548 H:(016)552-9360

현우기획